

나주시, 상반기 공동급식 237개소 실시

여성 농업인 가사노동 경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신규시책 '꾸러미 급식'·'반찬배달사업' 하반기 추진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마을 237개소를 대상으로 마을공동급식을 확대 실시, 농번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시는 상반기 마을공동급식 사업비 3억 8천여만 원을 투입, 공동급식을 신청한 237개 마을 전체에 급식 재료비 및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공동급식은 농촌 활성화의 일환으로 급식 여건을 갖춘 마을 경로당, 회관 등에서 인건비, 부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경감은 물론, 주민 간 친목도모, 정보교류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역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전남도 시책 사업 선정과 더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는 마을공동급식과 더불어

올 하반기 신규시책인 '꾸러미 급식 지원사업'과 '반찬배달지원사업'을 추진, 농촌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하반기 마을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 꾸러미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이며, 반찬배달 지원 사업은 음식 조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마을에 반찬을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급식도우미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마을공동급식은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노동 경감과 마을 공동체 형성,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급식 전 지역 확대 실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화에 힘써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영광군보건소는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간호사 8명이 대상자들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온열질환의 증상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대처요령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로당을 순회하며 충분한 수분섭취, 한낮 외출차제, 노약자에게 관심 갖기, 응급환자 발생시 119 신고 후 서늘한 곳으로 옮기기 등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군, 日 아베 규탄 '군민문화제' 개최

장흥군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군민문화제가 열린다.

'의향장흥 군민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장흥군청 앞에서 열린다. 행사를 기획한 '8.15 광복절 기념 장흥군민문화제 행사준비위원회'는 경제침략 아베 규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하며 지역민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일청구권협정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 주장하며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병의 고장, 동학의 성지인 장흥군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또다시 경제침략에 나서고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규탄의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장흥군 100여개 지역사회단체는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조치에 맞서 일본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번 군민문화제를 계기로 장흥군

에 불고있는 일본 제국 불매운동과 국산품 애용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관측이다.

역사적으로 장흥군은 호남의병과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항일투쟁 역사의 맥이 흐르고 있는 고장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해동사'도 장흥군에 있다.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순흥 안씨)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함에 안타까워 한 장흥 유림 안홍천(죽산 안씨) 선생이 1955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 세워졌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방언이 이끄는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본대에 맞서 장흥군 석대들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장흥군은 동학농민군의 장렬한 희생을 기리고자 2015년 석대들 인근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수리해 조선 수군을 재장비한 회령진성(현재 회진면)도 장흥군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함평군, '남도지방 역사공원' 유치 속도 낸다

함평군의 '남도지방 역사공원' 유치 작업이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함평군 남도지방 역사공원 유치 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함평화다리 고등학교 삼락관에서 '공원 유치를 위한 의병역사보고 및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장(김태원의병장 후손) 등 기관·사회단체 및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해 결의문 채택, 유치 서명식 등으로 추진위의 역

사공원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올 초부터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남도지방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호남지역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기념관과 공원,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 원에 부지면적만 10만여 평(33만㎡)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가운데, 함평은 남일 심수택, 죽봉 김태원, 청봉 김윤 형제 등 구한말 호남의병장 6거두(巨頭) 중 3거두가 속한 '항일

의병 중심지'라는 이점으로 공원 유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일강 김철, 김석, 안후덕 등의 독립투사가 모두 함평 출신이고 상해 임정 청사를 그대로 재현해 낸 기념관이 상시 운영 중이라는 점도 유치 과정에서 효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김창훈 함평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유치추진 협의회를 구성, 부지 선정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각 읍·면별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료조사와 의병 관련 유물·유구 등을 수집하고 있다.

또 전남도가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평가에 지역민의 참여까지 포함시키기에 따라 지난달에는 협의체를 추진 위원회로 격상, 군 변영희 등 63개 지역사회단체장이 참여한 100여명의 추진위원으로 재편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부지확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 군은 인접한 영광·무안군에 대응적인 연대 협조체계를 요청하는 한편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작성해 역사공원 대상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생각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의 예술문화 한층 더 발전시킨 '담빛길 예술교실' 성료

각종 공예·사진 촬영 등 다양한 교육으로 큰 호응



담양군문화재단이 담빛길 구간 내 각 문화·예술 공간에서 6월부터 진행한 '2019 담빛길 예술교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담빛길 예술교실은 6월 1일을 시작으로 8월 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담빛길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고자 추진됐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공방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각종 공예와 사진 촬영, 염색 등의 다양한 교육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강좌(질

보와 금속공예, 드로잉 및 채색, 대나무공예, 규방공예, 한국화, 소품 및 소가구 제작, 가죽공예, 사진 촬영 및 글쓰기, 천연염색, 야생화 자수, 침선공예)에는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3일을 끝으로 잠시 재정이 시간을 갖춘 후, 9월 중 담빛길 구간을 확대해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 담빛길 예술교실'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고품질 쌀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



화순군이 오는 16일까지 벼 병해충 기본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제대 병해충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예방·방제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 효율성 제고와 병충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본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벼 병해충을 예방한 결과, 흰등밀구·떡도리재·나방류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잎집무늬마름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벼 생육 후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삭도열병은 이삭 패기 시작할 때가 방제 적기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군은 고령 농업인과 장애인 등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방제를 지원하는 농약 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80ha, 800만 원)과 벼 친환경 농업 단지 공동방제 지원 사업(1500ha, 2억 4000만 원)을 추진해 병해충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병해충이 발생하면 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 방제 기간에 종합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